

#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

## Relationships Among Couple-Conflict, Forgiveness, Depression, and Anxiety : Moderating Effects of Forgiveness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임강사 김 사라 형선\*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

Full-time Instructor : Kim, Sarah Hyoung Sun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amongst couple conflict, forgiveness, depression, and anxiety according to gender. This study also examined whether forgiveness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among couple conflict, depression, and anxiety according to gender. The sample consisted of 263 parent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couples reported their level in the Couple Conflict Inventory,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Anxiety only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husband and wife. 2) Couple conflict positively related to husband and wife depression and anxiety. Forgiveness is negatively related to couple conflict, anxiety, and depres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3) The moderating effects of forgiveness within couple conflict and depression only showed with the wife. 4) The moderating effect of forgiveness between couple conflict and anxiety was only displayed by the husb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forgiveness could function as a protective factor for couples who perceive couple conflict, depression, and anxiety. These results suggest implications for couple conflict education and couple counseling according to gender.

---

▲주요어(Key words) : 부부갈등(Couple conflict), 용서(forgiveness),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중재효과(moderating effect)

### I. 서론

건강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소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는 달리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한다. 통계청(2009)의 보고에 의하면, 2008년도의 이혼건수는 총 116,500건이었고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격차이로 오는 부부갈등이 55.6%로 가장 많았다.

부부갈등은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한 부부갈등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모양으로 가정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부부갈등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의를 내려 보자면 부부갈등은 인간관계에서의 욕구와 목표 및 기대가 상반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oleman, 1984; Koerner & Jacobson, 1994).

양영숙(2008)은 부부갈등이란 부부가 가정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긴장 및 갈등이며,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조화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태기(2000)는 부부갈등을 사소한 시비나 다툼 또는 악조건들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들을 바탕으로 할 때 부부갈등이란 부부 간에 서로 다른 욕구와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이라

---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 사라 형선 (E-mail : khsahm@hanmail.net)

할 수 있다.

부부갈등의 원인으로는 부부의 잘못된 의사소통, 이기적인 태도, 돈, 종교, 가치관, 섹스 등의 불일치(Collins, 1985)와 제삼자로 인한 갈등, 성격차이, 개인적 갈등(Coleman, 1984) 등이 있다.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애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자녀문제, 건강문제, 성문제, 친족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부부갈등이 심화되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인 우울과 불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uber et al., 1990; Erel & Burman, 1995; Kitzman, 2000; Krishnakumar & Buehler, 2000).

부부관계는 어떤 대인관계보다 정서적인 개입이 크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의 상처경험은 부부 간에 우울이나 불안 또는 분노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또한 우울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장시간 처리되지 못하고 지속될 때 개인의 정서와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오영희, 2006). 특히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 간의 친밀감이 낮아질수록 아내가 남편보다 더 우울함을 느끼므로, 부부갈등은 아내의 정서에 보다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노은여·권정혜, 1997; Sloan & L'Abate, 1985; Snyder, 1989). 이와 같이 부부갈등의 심화는 부부의 정신생활 뿐 아니라 가족전체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가족해체의 위기까지 초래할 위험성을 지닌다.

따라서 부부갈등을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인지치료, 부부치료, 가족치료(이명원, 2009; 한숙자, 2007; 김근임, 2008; 양영숙, 2008) 등이 있었고, 부부갈등의 해결을 위한 용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용서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Fincham & Beach, 2002; Fincham et al., 2004; McCullough et al., 1998; Muller et al., 2005; Orathinkal & Vansteenwrgen, 2006; Paleari et al., 2005; Rye et al., 2004). 즉, '용서'가 부부갈등 해결의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용서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를 치료해 주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Enright와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1991) 동료들의 연구에서부터이다. Enright 등은 용서에 대한 기존의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인 개념들을 토대로 용서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용서모형에 대한 탐구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용서의 치료효과를 밝히려 노력한 바 있다.

용서는 개인적으로 깊은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갖는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과 감정을 가질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럴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수, 2002; 오영희, 2007; Enright,

2001; Hunter, 1978; Luskin, 2002; Murphy, 1982). 또한 용서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 정서나 판단 행동이 사라지고 긍정적 정서와 판단 행동이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Gassin, 1995). 이와 같이 용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고 자아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중요한 인간적 능력으로(김광수, 1999),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결단이자 관계회복과 정서적 건강으로 가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용서의 의미를 보면 용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분노, 우울, 불안,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반면,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수, 2004; 박종효, 2002; 오오현, 2001; 오영희, 2004, 2007; Baskin & Enright, 2004; Brown, 2003; Enright & Fitzgibbons, 2000; Luskin, 2002; Muller et al., 2005; Wilson, 1994). 특히 용서는 부부갈등의 상처로부터 오는 우울과 불안을 자기 스스로 회복하도록 촉진시켜 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고(Fincham, 2003), 용서치료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과 불안 수준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Coyle & Enright, 1997). 따라서 용서는 실행하지 않을 때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실행하게 되면 부부갈등을 비롯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부갈등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부부갈등을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영철(2006)은 부부의 성격차이와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해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전영자(2005)는 부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현실요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백승순(2001)은 의사소통훈련을 통해 부부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의사소통 습득이나 인지·행동요법을 통해 부부갈등을 해결하려는데 그쳤다. 그 외 연구들(김영희·정선영, 2007; 이영자·장영애, 2002; 조성경·최연실, 2006; 조유리·김경신, 2002)에서도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부부갈등의 요인과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뿐이다. 최근에 양영숙과 김복환(2009)의 연구에서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밝힌 바 있지만 중재변인으로서의 용서의 효과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용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나 용서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갈등을 치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용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부부관계 갈등의 대처 전략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으나, 용서를 중재변인으로 하여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 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또한 기존의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들(금은

순, 1996; 한영숙, 2007)에서 성별에 따라 변인(부부갈등, 결혼만족도)들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고, 특히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이기에 부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시 용서, 우울 및 불안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 간에 용서의 중재효과가 나타난다면, 부부갈등에서 발생하는 상처로 인해 오는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치료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용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 시 우울, 불안, 용서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 용서 간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우울 간에 용서의 중재효과가 다른가?
- <연구문제 4>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불안 간에 용서의 중재효과가 다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부갈등

부부갈등이란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생기는 것으로(장춘미, 2005), 부부갈등이 있다는 것은 배우자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서로 간에 긴장감이 생기고 그것이 적대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송영자, 1986).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도 가치나 생각들이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부부갈등의 요인에는 성격차이와 의사소통문제, 성문제,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종교문제, 인생관과 가치관 차이, 가사일 분담, 여가활동, 자녀문제와 고부간의 문제 등이 있다(류순근, 2004; Collins, 1985). 특히 청소년을 자녀로 둔 중년기 부부들은 위의 문제들 외에도 자녀들의 반발과 반항을 통해 가정의 위기의식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정체감과 자신감에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고3 수험생을 둔 부부는 자녀

의 입시가 끝날 때까지 초긴장 상태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과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김근임, 2008).

결혼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중의 하나이다. 부부관계가 즐겁고 행복한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평안하나 부부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심한 좌절과 아픔을 겪게 된다. 이렇듯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부부간의 친밀감과 일체감이 줄어들게 되고 서로간의 대화가 없어지게 되며,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대방에 대해 포기하게 된다. Collins(1985)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가정생활을 유지하면 긴장이 유발돼 신체적으로는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정서적으로는 우울하고 불안하게 된다(나상오, 2001). 더욱이 부부갈등으로 겪게 되는 우울과 불안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부부폭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이혼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Collins, 1985).

부부갈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고 우울정도가 높다고 하였고(임정빈·정혜정, 1986; 전영자, 1991), 최규련(1993a)도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으로 인해 오는 낮은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Rose et al., 1990), 부부갈등이 심해지면 분노가 심해지고(Weiss, 1985) 화병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김종우 등, 1996; 전경구 등, 1998). 따라서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부부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배미자, 2003; 서정선, 2007; 윤영숙, 2004)이 시작되었다. 이 중 Hill(2001)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용서가 부부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오영희(2007)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용서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부부갈등에 관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부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나 용서가 우울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가 있긴 하지만, 부부갈등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에서 용서의 중재효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없기에 이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용서

용서의 개념이 종교, 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Enright와 그의 동료들(1991)에 의해 내려진 용서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용서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극복하고 상대방의 어떤 행위나 자기에 상관없이 상대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용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

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오영희, 1995).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분노와 우울, 불안, 슬픔 등의 감정으로 나타나며, 이는 자신의 정서와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용서를 하게 되면 깊은 상처가 치료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김광수, 2002; 박종효, 2003; 오영희, 1995; Smedes, 1984; Enright & Fitzgibbons, 2000). 그뿐 아니라 용서를 하면 갈등과 상처로 인해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관계도 할 수 있게 된다.

용서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용서는 우울, 불안, 분노를 준 사람에 대한 집착과 충동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Enright & Fitzgibbon, 2000; Worthington, Jr., 2005), 자신의 우울, 불안, 분노, 슬픔 등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elb & Enright, 1993; Coyle & Enright, 1997; 김광수, 1999).

최근에 용서가 부부관계의 상처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으로 제시되었다(배미자, 2003). 그 이유는 용서를 통해 본인이 먼저 치료되고(김광수, 2002; 오영희, 1995), 배우자를 용서함으로 부정적인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Enright & Fitzgibbons, 2000). 이처럼 용서는 관계회복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Hill, 2001).

부부관계와 용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nright와 Fitzgibbons(2000)는 용서가 부부문제에서 오는 분노와 상처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밝혔고, Knutson(2003)은 부부에게 용서교육을 실시한 결과, 결혼만족도가 향상되고 부부관계가 강화되었음을 규명하였다. Fincham과 Beach(2002)는 용서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결과를 밝혔는데, 아내들의 경우는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남편들의 경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용서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했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았듯이, 용서는 부부문제에 의한 부정적 정서의 해결방안으로 밝혀지고는 있으나 용서를 중재변인으로 하여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성별에 따른 중재효과를 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단지 Fincham과 Beach의 연구(2002)에서 성별에 따라 용서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밝혔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 우울, 불안, 용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용서가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중재효과가 나타난다면 부부갈등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중재방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K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5곳을 무선으로 선정하여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부 총 263쌍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부로 선정 한 이유는 이 시기의 부부들은 자녀의 사춘기와 더불어 대학 진학문제로 부부간에 갈등 및 부정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하고 학생 편에 설문지를 집으로 보내었다. 각 학교에 120(60쌍)부씩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과 부부 중 한사람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26부(263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규련(1995)이 개발하고 양영숙(2008)이 사용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전체 26문항으로 하위영역을 보면 개인 갈등영역 9문항, 부부관계 갈등영역 9문항, 공동생활 갈등영역 4문항, 제 3자 갈등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갈등영역은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 건강의 요소로 구성되었고, 부부관계 갈등영역은 대화, 부부간의 성생활, 애정이나 관심, 외도나 부정의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생활 갈등영역은 금전소비 및 관리, 가사노동 분담, 주거·주택 계획, 가족여가 활동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개인 갈등 .70, 부부관계 갈등 .71, 공동생활 갈등 .71, 제 3자 갈등 .70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 2) 용서 척도

용서검사를 위해서는 김광수(1999)가 번안하고 윤영숙(2004)이 사용한 용서척도(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EF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0문항은 각각 가해자에 대한 감정을 묻는 20문항(1-20번), 행동을 묻는 20문항(21-40번), 생각(인지)을 묻는 20문항(41-60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6문항(61-66번)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상황에서의 고통의 정도나 거짓용서의 정

도를 알아보는 문항이다(Osterndorf, 1999).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가 .90, 행동이 .94, 인지가 .91 이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Beck 우울 척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Beck 우울증 척도'는 총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우울 척도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고 점수 해석에 있어서 Beck은 0~9점은 정상상태, 10~15점은 경한 우울상태, 16~23점은 우울상태, 24점 이상은 심한 우울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 4) 불안 척도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Morey(1991)가 제작한 성격평가 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를 김영환 등(200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성격평가 질문지에서 추출한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인지적 불안을 측정하는 8문항, 정서적 불안을 측정하는 8문항, 생리적 불안을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 인지적 불안척도는 .89, 정서적 불안 척도는 .87, 생리적 불안척도는 .88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부부갈등 시 우울, 불안, 용서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했고,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 우울, 불안, 용서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용서가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 간에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평균 연령은 45세, 아내의 평균연령은 44세이다. 남편의 연령을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46세 이상 50세 미만이 161명(61.2%)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45세미만이 92명(35%), 50세 이상이 10명(3.8%)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연령은 40세 이상 45세 미만이 139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46세 이상 50세 미만이 117명(44.5%), 40세 미만이 4명(1.5%), 50세 이상은 3명(1.1%)순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학력은 대졸 163명(62%)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 91명(34.6%), 대학원 이상이 9명(3.4%)이었다. 아내의 학력은 고졸이하 136명(5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 124명(47.1%), 대학원 이상이 3명(1.1%)이었다. 기혼남녀의 결혼 형태는 모두 초혼이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명(%)	
		남편(263)	아내(263)
연령	40미만	0(0)	4(1.5)
	40이상~45미만	92(35.0)	139(52.9)
	46이상~50미만	161(61.2)	117(44.5)
	50이상	10(3.8)	3(1.1)
	평균	45	44
학력	고졸이하	91(34.6)	136(51.8)
	대졸	163(62.0)	124(47.1)
	대학원이상	9(3.4)	3(1.1)
결혼형태	초혼	262(100)	262(100)

## 2. 부부갈등 시 남편과 아내 간에 우울, 불안, 용서 수준의 차이

부부갈등 시 남편과 아내 간에 우울, 불안, 용서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부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부부갈등 시 불안( $t=-2.446, p<.05$ )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아내가 인식하는 우울의 평균(2.664)이 남편(2.57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용서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남편의 평균(3.012)이 아내(2.78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갈등상황에 처하게 되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불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갈등이 있더라도 우울과 용서수준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3.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 용서와의 상관관계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 용서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은 부부갈등과 우울( $r=.967, p<.001$ ), 부부갈등과 불안( $r=.947, p<.001$ )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부부갈등과 용서( $r=-.974, p<.001$ )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용서는 우울( $r=-.970, p<.001$ ), 불안( $r=-.957, p<.001$ )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아내도 부부갈등과 우울( $r=.964, p<.001$ ), 부부갈등과 불안( $r=.958, p<.001$ )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부부갈등과 용서( $r=-.971, p<.001$ )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용서는 우울( $r=-.972, p<.001$ ), 불안( $r=-.966, p<.001$ )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용서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 용서수준이 낮으면 더 많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용서수준이 높으면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 다중공선성

<표 2> 부부갈등 시 남편과 아내 간 우울, 불안, 용서수준의 차이

변인	남편		아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울	2.575	.917	2.664	.926	-1.102
불안	2.587	.927	2.787	.943	-2.446*
용서	3.012	1.606	2.785	1.535	1.662

\* $p<.05$

<표 3>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 우울, 불안과 용서 간의 상관관계

변인	(N=526, 263쌍)							
	1	2	3	4	5	6	7	8
남편								
1. 부부갈등	1							
2. 우울	.967***	1						
3. 불안	.947***	.965***	1					
4. 용서	-.974***	-.970***	-.957***	1				
아내								
5. 부부갈등				1				
6. 우울				.964***	1			
7. 불안				.958***	.970***	1		
8. 용서				-.971***	-.972***	-.966***	1	

\*\*\* $p<.001$

의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 시에는 각각의 독립변인을 센터링(centering)하였다.

4.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우울에 대한 용서의 중재효과

본 연구의 목적인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고자, 부부갈등과 용서 및 부부갈등과 용서 간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우울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부부갈등과 용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부갈등과 용서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의 독립변인 간에 tolerance가 0.1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용서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을 모두 센터링함으로써 상호작용 항과 독립변인간의 tolerance값을 높이고자 하였다. 센터링(Centering)이란 독립변인들을 편차점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인의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 주는 것을 센터링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센터링한 두 편차점수의 곱을 구하여 회귀모형에 포함시킴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을 센터링함으로써 상호작용항과 각 주효과를 나타내는 독립변인간의 tolerance값을 높일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tolerance가 1

에 접근하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최소 0.1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반재천, 2009). 독립변수를 센터링한 후에도 부부갈등과 용서의 tolerance값은 모두 0.1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부갈등과 용서의 중재효과인데, 부부갈등과 용서를 곱한 변수(부부갈등×용서)의 tolerance값은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염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용서의 중재효과를 해석하였다.

<표 4>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우울 경험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관계에서 용서가 남편에게서는 변화가 없지만 아내에게서는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과 용서 간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하였을 때 남편은 설명력(R<sup>2</sup>)이 .951에서 .951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 아내는 설명력(R<sup>2</sup>)이 .952에서 .95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에게서만 부부갈등과 우울 간에 용서의 중재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에게 있어서 중재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아내가 우울하더라도 용서수준이 높으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반대로 아내의 용서수준이 낮을 경우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아내의 우울함은 증가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우울에 대한 용서의 중재효과

(N=526, 263쌍)

독립변수	모델 1		모델2		
	B(SE)	β	B(SE)	β	tolerance
남편					
부부갈등	.298(.042)	.432***	.297(.042)	.431***	.051
용서	-.314(.034)	-.550***	-.329(.036)	-.577***	.046
부부갈등×용서			-.030(.023)	-.032	.371
R2	.951		.951		
△ R2			.000		
F	2522.682***		1687.146***		
△ F			1.739		
아내					
부부갈등	.259(.041)	.362***	.281(.041)	.393***	.056
용서	-.374(.034)	-.620***	-.337(.038)	-.559***	.048
부부갈등×용서			.057(.024)	.045***	.492
R2	.952		.953		
△ R2			.001		
F	2563.208***		1739.952***		
△ F			5.462***		

\*p<.05, \*\*\*p<.001

&lt;표 5&gt;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불안에 대한 용서의 중재효과

(N=526, 263쌍)

독립변수	모델 1		모델2		tolerance
	B(SE)	$\beta$	B(SE)	$\beta$	
남편					
부부갈등	.209(.054)	.299***	.207(.053)	.297***	.051
용서	-.384(.044)	-.666***	-.421(.046)	-.729***	.046
부부갈등×용서			-.070(.029)	-.075*	.321
R2	.920		.922		
$\Delta R2$			.002		
F	1504.722***		1024.344***		
$\Delta F$			5.977***		
아내					
독립변수	모델 1		모델2		tolerance
	B(SE)	$\beta$	B(SE)	$\beta$	
부부갈등	.260(.046)	.357***	.268(.047)	.365***	.054
용서	-.381(.039)	-.620***	-.367(.043)	-.599***	.047
부부갈등×용서			.021(.028)	.016***	.497
R2	.940		.940		
$\Delta R2$			.000		
F	2041.283***		1358.767***		
$\Delta F$			.565		

\*p&lt;.05, \*\*\*p&lt;.001

### 5.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불안에 대한 용서의 중재효과

다음의 <표 5>는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용서가 그 영향을 완화시키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의 독립변인 간에 tolerance가 0.1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용서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을 모두 센터링하였다. 독립 변수를 센터링한 후에도 부부갈등과 용서의 tolerance값은 모두 0.1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부갈등과 용서의 중재효과인데, 부부갈등과 용서를 곱한 변수(부부갈등×용서)의 tolerance값은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염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용서의 중재효과를 해석하였다.

용서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갈등과 용서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한 결과 남편의 설명력( $R^2$ )은 .920에서 .922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내의 설명력( $R^2$ )은 .940에서 .940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에게만 부부갈등과 불안에 대한 용서의 중재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부부갈등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용서 수준이 높으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용서수준이 낮으면 부부갈등이 불안수준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아내의 경우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용서가 완충시킬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부모 총 263쌍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 용서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부가 갈등을 경험할 때 우울과 불안 및 용서수준에 있어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는지, 둘째,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우울 및 불안, 용서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셋째,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가 있는지, 넷째,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 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불안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아내가 남편보다 더 불안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용서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결과는 부부간에 친밀감이 낮아지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우울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Sloan & L'Abate, 1985; Snyder,



1989)와 상치된다. 하지만 우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아내 평균이 남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 용서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부부갈등과 용서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용서와 우울, 불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과 불안은 더 많이 경험하고 용서 수준은 낮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용서수준이 높으면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우울하다는 결과는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갈등이 적을수록 우울이 감소한다(최규련, 1993a, 1993b)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용서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부부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용서가 효과적인 방법(Fincham, 2003)이라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셋째, 용서수준이 높으면 우울과 불안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용서가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오영희, 2007; Reed & Enright, 2006; Hargrave, 1994; Worthinton, Jr., 2005)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또한 배우자로부터 확대받은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용서치료를 받은 아내가 그렇지 않은 아내에 비해 우울과 불안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결과(Reed & Enright, 2006)와도 상통한다.

본 결과는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부부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용서라는 변인은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 변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갈등 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용서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용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도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은 불안에서, 아내는 우울에서 용서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 상황에서 용서수준이 높으면 남편은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음을, 아내는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용서는 부부갈등과 불안의 관계, 부부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으로, 용서수준이 높으면 부부갈등이 심각할지라도 남편은 불안을, 아내는 우울을 덜 경험하게 하여 부정적 정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갈등이 심할지라도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불안

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결과는 용서를 잘하면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서정선(2007)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치료하는데 있어 용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Battle & Miller, 2005), 용서처치를 한 후 우울과 불안이 줄어들었다(Coyle & Enright, 1997)는 연구결과도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심해 우울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용서 수준이 높으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서를 하게 되면 부부갈등으로 인해 오는 상처의 회복에 도움을 주어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이에 부부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용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부부갈등 시 나타나는 불안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규명한 점이다. 둘째,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성별에 따른 용서의 중재효과를 밝혔다. 이는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및 처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에 대해 상담할 경우 집중적으로 용서의 의미와 중요성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 부부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부갈등 상황에서 우울과 불안을 예방하고 개입 및 치료하기 위해서 용서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부부갈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상담 및 심리치료의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시 불안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부갈등 시 불안과 용서에 있어 성별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논의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부부갈등과 우울, 용서,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초혼 상태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점차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므로 다양한 가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부부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부부가 동시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를 의식하여 왜곡되게 답변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주관식 질문지와 면접을 추가해 측정함으로써 연구결과 타당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함으로써 중재효과

검증 시에는 독립변인을 모두 센터링하여 상호작용항과 독립변인간의 tolerance 값을 높였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의 독립변인 간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여전히 회귀모형 속 계수들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 이외에 각 회귀계수들의 직·간접적인 비교와 해석에 주의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 투입 이전에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김은순(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수(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수(2002). 용서 연구의 동행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6(2), 113-131.
- 김광수(2004). 경험 과학적 용서 연구의 반성적 고찰과 제언. *교육심리연구*, 18(4), 33-49.
- 김근입(2008). 부부갈등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김지혜·오상우·임영란·홍상환(2001). 성격평가 질문지(PAI)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김영희·정선영(2007). 부부갈등과 결혼 만족도: 갈등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김종우·이조희·이승기·엄효진·황의완(1996). 횡병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지*, 4(2), 23-32.
- 나상오(2001). 부부갈등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은여·권정혜(1997).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 류순근(2004). 중년기 부부의 갈등해결을 위한 목회적 방안 연구: 부부대화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효(2002). 공격적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효과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종효(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 반재천(2009). 통계적 기법. 대전: 충남대학교.
- 배미자(2003). 부부갈등대처 및 용서와 결혼만족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순(2001). 기독교인 중년부부를 위한 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선(2007).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숙(2008).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영숙·김복환(2009).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683-699.
- 오영희(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 오영희(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갈등 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오영희(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 오영희(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오오현(2001).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영숙(2004).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이 목회자 부인들의 용서, 분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원(2009). 부부갈등 극복을 위한 가족치료와 기독교 상담: M. Bowen과 V. Satir의 이론을 중심으로.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장영애(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79-93.
- 이영호·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1), 98-113.
- 임영철(2006).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분석: James M. Donovan의 대상관계 부부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빈·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4.
- 장춘미(2005). 결혼만족에 대한 부부갈등 해결 전략 결합 양상의 상승효과, 논문집(13), 221-243.

- 전경구·김종우·박훈기(1998). 환병환자와 일반부부의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지*, **6(1)**, 9-23.
-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4.
- 전영자(2005). R.T.를 적용한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14(2)**, 242-250.
- 정태기(2000). 위기와 상담. 서울: 크리스천 치유목회 연구원.
- 조성경·최연실(2006).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 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35.
- 조유리·김경신(2002). 부부의 갈등 대처행동과 결혼 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최규련(1993a).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최규련(1993b).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갈등과 대처전략이 결혼 만족도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논문집*, **11**, 301-318.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가 갈등 및 대처 방안 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통계청, www.nso.go.kr.
- 한숙자(2007). 부부갈등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 *한영논총*, **11**, 261-281.
- 한영숙(2007).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6(2)**, 259-272.
- Baskin, T. W. & Enright, R. D.(2004). Intervention studies on forgiveness: A meta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 79-90.
- Battle, C. L. & Miller, I. W.(2005). Families and forgiveness. In Worthington, Jr., L.(Ed.). *Handbook of forgiveness*. N.Y.: Routledge.
- Brown, R. P.(200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forgiveness: Validity and links with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759-771.
- Coleman, P. K.(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N.Y.: The Bobbs-Merrill.
- Collins, G. R.(1985). 피현희, 이해련 역(1984). *크리스천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서원.
- Connery, T. J.(2002). *Forgiveness: A correlational study between the spirit of forgiveness and physical health in senior citizens*. The University of Florida.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Coyle, C. T.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6)**, 1042-1046.
- Enright, R. D.(2001). *Forgiveness is a Choice*.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D., Eastin, D. L., Golden, S. & Sarinopoulos, I. & Freedman, S.(1992). Interpersonal forgiveness within the helping professions: An attempt to resolve differences of opinion. *Counseling and Values*, **36**, 84-103.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A development view. *Journal of Moral Education*, **2**, 99-114.
- Erel, O. & Burman, B.(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1990). A Mediatl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Fincham, F. D. (2003). Marital conflict: Correlates, structure, and context,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12(1)**, 23-27.
- Fincham, F. D. & Beach, S. R. H.(2002). Forgiveness in marriage: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constructive communication. *Personal Relationships*, **9(3)**, 239-251.
- Fincham, F. D. & Beach, S. R. H. & Davila, J.(2004). Forg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1)**, 72-81.
- Gassin, E. A.(1995). *Social cognition and forgiveness in adolescents romance. An intervention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Hargrave, T. D.(1994). *Families and forgiveness: Healing wounds in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N.Y.: Brunner/Mazel.

- Helb, J. H. & Enright, R.D.(1993). Forgiveness on an integrated theory of emotional development. In Cicchetti, D. & Hesse, P.(Eds). *Emotional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Hill, E. W.(2001). Understanding forgiveness as discovery: Implications for marital and family therap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3, 369-384.
- Hunter, R. C.(1978). Forgiveness, relation, and paranoid reactions.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23, 167-173.
- Kitzman, K. M.(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13.
- Knutson, J. A.(2003). *Strengthening marriage through the practice of forgiveness*.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Koerner, L. & Jacobson, N. J.(1994). Emotion and behavior in couple therapy. in Jacobson S. & Greenberg, L.(Eds), *The heart of the matter: Perspective on emotion in marital therapy*(207-226). N.Y.: Brunner/Mazel.
- Krishnakumar, A. & Buehler, C.(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49, 25-44.
- Luskin, F.(2002). *Forgive for good. A Proven prescription for health and happiness*. San Francisco: Harper Collings.
- McCullough, M. E., Pachal, K. C., Sandage, S. J. & Worthington, E. L., Jr. & Brown, S. W. & High, T. L.(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U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6), 1586-1603.
- Morey, C.(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anual*.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uller, E., Neto, F. & Riviere, C.(2005). Personality and its effects on resentment, reveng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In Worthing, Jr., E.(Ed), *Handbook of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159-181). N.Y. : Routledge.
- Murphy, J. G.(1982). Forgiveness and resentment. *Midwest Studies on Philosophy*, 7, 503-516.
- Orathinkal, J. & Vansteenwegen, A.(2006). The effect forgiveness on martial satisfaction relation to marital stabilit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2), 251-260.
- Osternodorf, C.(1999). *Effects of a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nsconsin-Madison.
- Paleari, F. G., Reralia, C. & Finchnam, F.(2005). Marital quality, forgiveness, empathy, and rumin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68-378.
- Reed, G. L. & Enright, R. D.(2006). The effects of forgiveness therapy on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for women after spousal emotion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920-929.
- Rose, C. E., Mirowsky, J. & Golesteen, K.(1990).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56-1078.
- Rye, M. S., Parganment, K. L., Pan, W. & Yingling, D. W. & Shogren, K. A. & Ito, M.(2004). *Forgiveness and divorce: Can group interventions facilitate forgiveness and divorce of a former spous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Dayton.
- Sloan, S. Z. & L'Abate, L.(1985). Intimacy. In L'Abate, L.(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405-430). Il.: The Dorsey.
- Smedes, L. B.(1984).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 Row.
- Snyder, M.(1989). The Relationship enhancement model of couple therapy: An integration of Rogers and Bateson. *Person Centered Review*, 43, 358-383.
- Weiss, R.(1985). *Marital separation*. N.Y.: Basic Books.
- Wilson, H.(1994). *Forgiveness and survivors of sexual abuse: Relationships among forgiveness of the perpetrator, spiritual well-being, depression and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Worthington, E. L., Jr.(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Y.: Routledge.

접수일 : 2010년 03월 14일

심사일 : 2010년 04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8월 20일